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화에서 실린 소

《미황사사적비》에 의하면 검은 소가 경전을 싣고 가다 멈춘 곳에 미황사(美黃寺)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온다. 창건주인 의조화상(義照和尚)의 꿈속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는 우전국(優填國, 인도)의 왕인데, 경상(經像)을 모시며 여러 나라를 다니다 이 곳에서 일만불(一萬佛)을 보았기에 이 곳에 경을 모시려 한다”고 말한다.



금륜전 칠성탱의 무소

의조화상(義照和尚)이 장운(張雲)·장선(張善) 두 사미와 더불어 배 안을 살피니 《화엄경》 80권, 《법화경》 7권, 비로자나·문수보살 및 40성중(聖衆), 16나한과 탕화 등이 있고 또 금륜(金環)과 흑석(黑石)이 각 한 개씩 있었다.

향도들이 경을 해안에 내려놓고 봉안할 장소를 의논할 때 흑석이 저절로 벌어지며 그 안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문득 커졌다. 소에 경을 싣고 가는데 소가 가다 처음에 누웠다가 다시

자료 제21호)은 1930년 고산추연(高山竺演), 보응문성(普應文性), 학송(鶴松) 등의 화승들이 그린 것이다. 화면 안에는 중앙에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치성광여래와 좌우에 일광보살, 월광보살, 칠원성군 등이 빼곡히 그려진 구도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흰 소의 모습이다. 교토 고래미술관에 소장된 조선 선조 2년(1569년)에 그린 치성광여래강림도(熾盛光佛諸聖降臨圖)를 보면 수레를 끄는 소는 물소이다. 물소는 우리 나라에는 없다. 물론 무소(무소)도 없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14세기 초엽의 치성광여래강림도에도 수레를 끄는 소는 물소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십우도(十牛圖)의 기우취적도(소를 타고 피리부는 동자)가 타고 있는 소도 역시 물소이다.

소납이 베트남에 갔을 적에 그 곳 농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물소라는 말을 들었다. 물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이 많은 논에서 황소는 힘을 못쓰는데 물소는 황소의 두세배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금륜전 칠성탱의 소는 흰 뿔이 머리 위에 홀로 장대하게 서있는 무소(무소)이다.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흰코뿔소이다. 왜 화승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화의 물소 대신에 무소를 그렸을까?

그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단지 수타니파타의 무소품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날 따름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서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미황사 창건은 소와 연관

안양암 금륜전 흰소 ‘눈길’

일어나 산골짜기에 이르러 다시 누우며 ‘미(美)’하고 크게 울며 죽어 버렸다.

소가 처음 누웠던 곳에 사찰을 창건하니 곧 통교사(通敎寺)로, 뒤에 누워 죽은 골짜기에는 미황사를 짓고 경과 상을 봉안했다. 미황사의 ‘미’는 소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취한 것이고 ‘황’은 금인(金人)의 황홀한 색을 취한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가면 독특한 절이 아파트와 민가로 둘러 싸여 있는 안양암이 있다. 1889년에 창건된 작은 절엔 많은 불교문화재를 지니고 있다. 골목에 붙은 작은 문을 지나면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금륜전, 전호백불전, 영각, 열불당을 만날 수 있다.

그 곳의 금륜전이란 편액이 걸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그 편액을 쓴 이가 바로 해사 김성근 대감이다. 소납이 사는 동화사에도 중경스님이 계시는 열화실로 오르는 길에 영산전이 있는데 그 현판도 그가 썼다.

북송의 서예가인 미불의 독특한 행서체인 미남궁체로 쓴 현판이다. 김성근 대감은 살아 생전에 사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다 고 한다. 그 금륜전 안에 칠성탱(서울시문화재

“마곡사 불화의 역사 한눈에 조명”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마곡사의 유구한 역사와 근대 불화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가 12월 9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과 마곡사(주지 원해),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소장 문화재를 통해 사찰의 역사를 살피고, 마곡사 출신 화승(僧僧)들의 근대기 계보의 형성과 활동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1388, 보물 제269호)을 비롯한 문화재와 마곡사 계보의 화승들이 참여한 제작한 신원사 ‘신중도’ (1907), 표충사 ‘천수천안관음도’ (1930), 흥천사 ‘감로도’ (1939) 등 100여 점의 선보이다.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역사와 문화’ ‘근대불화를 만나다’ 두 주제로 꾸며진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세조의 어필로 알려진 ‘영산전’ 편액과 정조 때의 명필 조윤형 (1725-1799)의 ‘심경담’ 편액, 범종(충남 유형문화재 제62호), 향완(충남 유형문화재 제20호), 과거칠별 중 구류손불(留留孫佛)로 알려진 17세기 목조여래좌상 등 많은 문화재가 최초로 절 문 밖을 나와 공개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주로 마곡사에 주재하며 활동한 화승 약효(若效, 1846-1928)

스님과 그의 제자들로 현재까지 가장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 계보를 보여준다.

근·현대기의 문성(文性, 1867-1954) 스님과 일섭(日燮, 1900-1975) 스님은 서구문물의 유입과 함께 증폭된 새 문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불화에 적용시켰던 화승들로 유명하다.

특히 이들 문화 중에 문성 스님은 서양 화법을 잘 구사하여 근·현대기 불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서는 그들의 대표작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작품들을 한 자리에

마곡사 출신 근대 화승 계보

신원사 신중도, 흥천사 감로도 등

근현대 100여점 작품 선보여

서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렇다면 공주 마곡사와 ‘근대불화’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주박물관 총동원 학예 연구사는 “조선시대 불교는 인신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파괴된 사찰을 정비하기 위해 재건불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그림을 담당하는 화승들이 늘어나 불화에 적재는 두어 명 많게는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제작하기 시작한다. 불화를 그리는데 많은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가 12월 9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소장 문화재를 통해 사찰의 역사를 살피고, 마곡사 출신 화승(僧僧)들의 근대기 계보의 형성과 활동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그림은 마곡사 ‘석가설법도’

화승들이 참여한 것은 화폭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불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분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가운데 화승들이 이끈 우두머리 화승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불화 제작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한다.

이후 18세기 대표적인 화승인 전라도의 의겸, 경상도 의균과 임한 등을 비롯해 19세기 신겸, 응상 등 많은 화승들이 조직적

으로 활동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화승들의 활동이 지역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폭이 넓어졌다. 서울·경기 남양주 흥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응석, 강원도 금강산을 무대로 활동한 철우와 축연, 그리고 마곡사와 계룡산 일대에 많은 불화를 남긴 약효와 그의 제자 문성, 정연, 만홍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한일 대표 전통춤 한자리에 선보여”

한국춤예술센터 전통춤 류파전

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4회 한-일 전통춤 류파전’이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강남구민회관 등에서 10월 3일~7일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의 전통춤은 물론 일본 전통춤과의 합동공연이 진행된다.

사)한국춤예술센터 이철진 이사장은 “동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전통춤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극장에서 열리는 전통춤 국제 교류전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5일간 7회의 공연 역시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전통춤 공연의 아쉬움을 달래줄 것이다. 꿈꾸는 공작소는 80석의 소극장을 무대로 감상하는 사람과 공연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무용가 박덕상이 이매방 류 한량무를 선보인다. 남성적이며 고고한 선비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춤을 박

덕상이 기운찬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우정연무용단의 김수악류 구름검무가 펼쳐진다. 홀출름 정우정연무용단의 차명희, 정연희 두 사람이 이인무로 구성해 교방의 아름다움과 흥으로 살렸다.

특히 음악은 김수악의 구름과 장고로만 편성되어 김수악의 예기를 감상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박덕상 이매방류 한량무

일본-미타노리야키 난릉왕

마지막으로 남기성의 허튼 뗏배기춤도 펼쳐진다. 춤의 고장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뗏배기춤은 동래와 수영, 고성 등으로 전파되었다.

일본 전통춤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미타노리야키의 궁중악인 ‘난릉왕’이다. 미타노리야키는 일본악을 전승하고 있는 젊은 예능인 중 하나이다. 그는 2011년 2인무 페스티벌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악인 ‘나소리’와 공연한 바 있으며 궁중음악에도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하라타 사치코의 ‘신국포도’도 펼쳐진다. 65세에 달하는 그의 인생만

큼이나 ‘신국포도’라는 민요에 맞추어 공연되는 반동류의 일본무용은 접하기 쉽지 않은 일본무용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4회 한-일 전통춤 류파전’이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강남구민회관 등에서 10월 3일~7일 열린다. 사진 왼쪽은 박덕상의 ‘사물정감’, 사진 오른쪽은 하라타사치코의 ‘신국포도’.

http://www.예원물.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장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 (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추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이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저로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형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이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칙이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안,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여기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여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극건강재단, 오십견치료, 오주배계 등 자매제품다양)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